

“노래보다 연기?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서인국

열심히 달린 2016년 “내년 군 입대, 잠시 쉬어가요”

드라마 ‘38사기동대’는 연기에 터닝포인트 된 작품

“제 어릴 적 별명은 출랑방구새였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하도 까불고 다닌다고 불여주셨죠.”

서인국(29)은 “저는 인종이 짧고 입이 튀어나오고 눈도 찢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날카롭고 토라져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재 화난 거야’,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했다.

평소 지인들 눈에는 차분하고 진지하기 보다 조금 들뜨고 가벼워 보이는 모습이 익숙하다는 뜻이다.

얼마 전 종영한 MBC TV 수목극 ‘쇼핑왕 루이’에서 연기했던 주인공 루이와 닮은 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연기를 할 때는 서인국보다는 캐릭터 자체로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연기에 대한 재능만큼 욕심이 큰 듯했다.

“평소 친구들 중에 제 연기사 앨범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특히 고향 친구들은 아예 보지 않죠.”

그런데 ‘쇼핑왕 루이’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친구한테서 “잘 봤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제 봐줄 만하다는 얘기도 들었죠. 드디어 제가 TV에 나오는 게 익숙해졌다 봐요. 뿌듯한 한해입니다.”

서인국은 2009년 엠넷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1’에서 우승하면서 가수로 데뷔했다. 연기는 2011년 KBS 드라마 ‘사랑비’에 출연하면서 입문했다.

“가수 하면서 힘든 상황이 많아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고 혼자 속앓이를 많이 했죠. 그때 ‘사랑비’를 하게 됐는데 제가 봐도 연기를 너무 못했어요.”

‘쇼핑왕 루이’의 전작인 OCN 드라마 ‘38사기동대’가 연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이 됐다고 했다.

“38사기동대와 한동화 감독님을 만나게 행운이었죠. 제가 지향했던 연기 스타일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감독님을 만나면서 그런 게 다 부서졌어요. 38사기동대의 양장도는 저에게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서인국은 연기를 전문가에게 따로 배우기보다는 주로 촬영 현장에서 감독, 배우들과 의논하고 리허설을 충분히 하면서 훈련한다고 전했다.

서인국은 가수로 출발했지만 요즘 배우로서의 존재감이 더 커졌다. 하지만 아직은 둘 중 어느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서인국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둘 다 사랑하는 직업이고,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두기 어렵다”면서 “연기할 때도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음악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제 작품을 보고 저런 인생도 있다고 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배우가, 그리고 사람들의 사연을, 이야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내년에 입대할 것 같다고 했다.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장이 내년쯤 나올 거 같아요.”

그리고 제대 후의 변화된 자기 모습이 기대된다고 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진 아우라가 보이고 사연이 있어 보이는 배우들이 있죠. 어떤 남자 배우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엄청 색시해지는데 저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흠모하는 배우로는 황정민, 김명민을 꼽았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도 좋아한다고 했다.

스스로 매긴 올해 자신의 점수를 물었더니 “올해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90점을 주고 싶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에이핑크, 팬들 위한 스페셜 앨범 발표

‘별의 별’ ‘미스 유’ 등 다양한 장르 담은 ‘디어’ 15일 발매

결그룹 에이핑크가 15일 스페셜 앨범 ‘디어’(Dear)를 발표한다.

소속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는 이 앨범에 타이틀곡 ‘별의 별’을 비롯한 신곡과 새롭게 편곡한 히트곡들이 수록됐다고 최근 밝혔다.

신곡은 ‘별의 별’과 팬들에게 전하는 멤버들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디어’를 비롯해 ‘미스 유’(Miss U), ‘흔한 일’, ‘잃어버린 조각’, ‘그 봄날, 이 가을’ 등이다.

‘별의 별’은 히트곡 ‘미스터 चु’(Mr. Chu)를 프로듀싱한 이단양씨가 등이 작업했으며 애뜻한 느낌의 멜로디와 가사가 어

우러진 댄스곡이다. 팬들을 별에 비유해 에이핑크의 영원한 별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녹였다.

아울러 앨범에는 발라드로 해석한 ‘노노노’(NoNoNo)와 ‘러브’(LUV), 알앤비(R&B)로 바꾼 ‘내가 선행 수 있게’ 등의 편곡 버전과 ‘미스터 चु’, ‘동화 같은 사랑’, ‘4월 19일’의 반주 음원이 수록됐다.

소속사는 “6년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팬들을 생각하며 만든 앨범”이라며 “다양한 장르와 특별한 이야기로 구성돼 정규 앨범 못지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코요태와 함께 복고 열풍 한번 더”

주영훈과 12년 만에 뭉쳐 ‘빙빙’ 발표

국내 최장수 혼성그룹 코요태(김종민·백가·신지)와 작곡가 주영훈이 12년 만에 다시 뭉쳤다.

코요태는 히트곡 ‘비몽’(2002)과 ‘디스코왕’(2004)을 만든 주영훈과 함께 작업한 신곡 ‘빙빙’을 최근 발표했다.

‘빙빙’은 남녀노소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익숙한 멜로디의 곡으로 제2의 ‘비몽’탄생을 기대하고 선보이는 노래이다. 2000년대 초 전국의 클럽을 강타한 코요

태의 음악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노래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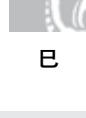
소속사 측은 “주영훈 씨와 함께한 12년만의 타이틀곡이어서 기대가 크다”며 “다시 한 번 복고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순정’으로 데뷔한 코요태는 ‘패션’, ‘파란’, ‘빙고’, ‘굿굿타임’ 등의 곡으로 사랑받았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혼성그룹 쿨과 함께 ‘쿨요태’로도 활동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창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봄날〉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우리말 겨루기 50 야생일기	0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재)	00 주말드라마 〈아빠님 제가 모실게요〉(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위대한 유산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재)	00 SBS 12 뉴스 5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토크콘서트 화통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특집 무형유산 한마당 전통의 맛과 흥 55 별별가족 (재)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양코리 MBC 청사특집 다큐 미래인간 AI	55 닥터 365
2	00 사람과 사람들(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5 텔레몬스터 (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3	05 특집다큐 도심화재, 우리는 안전합니까? 55 튜튼생활제초	00 자동차부책상 위키 2 30 TV 유지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3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30 특집 SBS 뉴스 이슈진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플러스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 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물록 남도에 살아리랴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베타인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00 드라마 스페셜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바다의 금맥, 해양심층수〉	10 해피 투게더	10 전설의 초대 with 박인비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킹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24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당동당 유지원 1~2 08:30 응감한 소방차 레이 08:45 놀이대장을 찾아라 09:00 주사위 오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타기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 &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가을에도 제주도 4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크림스 떡볶이와 양배추 버섯피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콜랜드-한자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펍스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7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 15:45 코코고 다코 16:15 두다다쿵 16:30 놀이대장을 찾아라(재) 16:45 당동당 유지원1~2(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나!~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정열의 나라,멕시코를 가다 4부〉 21:30 한국기행 〈뜨거워서 겨울 4부 그대 등에 기대어〉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부모고시 - 1교시〉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왜 항상 우리는 시간에 쫓길까? 24:10 스페이스 공감 1, 2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2월 8일(음 11월 10일 甲子)	
 子	48년생 영예로움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60년생 겉으로는 뜻을 같이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제각각이다. 72년생 표리가 부동하니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다. 84년생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72, 67	 午	42년생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54년생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다. 66년생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78년생 기대에는 어긋나겠지만 최소한의 결실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3, 26
 丑	49년생 구체적인 실재적이어야 유용하다. 61년생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으니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만 실기하지 않는다. 73년생 확실하게 수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85년생 가까이 다가서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1, 12	 未	43년생 성사될 수 없는 일이나 허황된 생각은 버려라. 55년생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성국이다. 67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실리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79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0, 24
 寅	50년생 값어치를 따져서 판단할 일이다. 62년생 선제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74년생 관심이 있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86년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5, 34	 申	44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처음부터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56년생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68년생 문젯거리로 비화 될 수 있다. 80년생 대응 관계에 놓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0, 49
 卯	51년생 남성에 실경 쓰지 말고 맑은 바에 최선을 다하라. 63년생 약간만 더 주력한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75년생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다. 87년생 일시적으로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5, 82	 酉	45년생 허장성세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준비해 왔다면 때가 순조로울 것이다. 57년생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무방하다. 69년생 길조가 비추나 기운이 자주 바뀌는 흐름이다. 81년생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10, 64
 辰	40년생 고뇌는 삶을 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52년생 강인한 정신과 굳센 추진력이 필요하다. 64년생 예상했던 바와 틀림없으리라. 76년생 분주할 것이다. 88년생 구태의연함을 벗어나 새롭게 전개되는 국망이니라. 행운의 숫자 : 88, 45	 戌	46년생 괴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58년생 착각한다면 큰 차질이 빚어진다. 70년생 한 번 만에 끝낼 일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82년생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47, 40
 巳	41년생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리라. 53년생 제3자의 말에 따라 좌우될 필요는 전혀 없다. 65년생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77년생 가변적인 모습이나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 89년생 새로운 일에는 끼여들지 말라. 행운의 숫자 : 90, 59	 亥	47년생 참으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 지켜보아라. 59년생 비록 취하기는 하겠지만 의미는 약할 것이다. 71년생 과욕을 부렸다가는 큰코다치는 수가 있다. 83년생 조짐들이 모아져서 현실화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5,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